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전남 휴일 날씨 26(土) 흐리고비 22/25℃ 27(日) 흐리고비 22/26℃

단기 4343년 (음력 5월 1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710호 1판 2010년 6월 26일 토요일

오늘밤 대한민국은 8강 축제

박주영·염기훈 투톱 우루과이 격파 선봉
그리스 깬 그 곳서 다시한번 유쾌한 도전

20010년 6월 온 국민은 행복하다. 축구 덕분이다. 한국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뤘고, 8강을 넘어 4강까지 꿈꾸는 축제 분위기다.

결전의 날은 26일(한국시간)이다. 밤 11시 태극전사들은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8강행을 타진한다.

국민의 바람은 2002년 한·일월드컵 때와 같다. "16강 숙원을 이룬 만큼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다" 젊은 그들의 도전은 승부를 떠나 신화가 되고, 마침내 전설로 남을 것이 확실해서다.

경기 장소인 포트엘리자베스의 넬슨만델라베이 스타디움은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한 안방 같은 곳이다.

우루과이를 꺾으면 미국과 가나의 승자와 격돌한다. 2002년 이탈리아와 16강전, 스페인과 8강전에 만나 승리를 거머쥐었던 한국으로선 해 볼만한 상대다.

"16강 팀답게 멋진 승부를 펼치겠다"는 '진돗개' 허정무 감독의 유쾌하고도 결연한 출사표다..

베스트 11 구상은 마쳤다. 선봉장은 간판 골잡이 박주영이다. 호남대 출신 염기훈이 파트너로 출격한다. 좌우 날개와 중앙 미드필더진은 박지성-이청용 콤비와 김정우-기성용 듀오가 호흡을 맞춘다. '양박(박주영·박지성) 쌍용(이청용·기성용)'은 이번에도 필승 카드로 나선다.

포백 수비라인은 중앙수비수 조용형과 이정수, 왼쪽 풀백 이영표의 자리가 고정적이지만 오른쪽 풀백만 당일 컨디션과 전술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차두리가 몸싸움에 강하지만 오범석이 아르헨티나전 때 뚫렸음에도 오버래핑이 좋고 발이 빠르다는 점에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골키퍼 장갑은 정성룡이 낀다. 승부차기 상황이 온다면 후반 막판에 정성룡 대신 위치 판단 능력이 좋은 이운재로 교체될 수 있다.

우루과이의 오스카르 타바레스 감독은 멕시코와 조별리그 3차전 때와 같은 4-2-3-1 전형을 구사할 전망이다.

루이스 수아레스와 에딘손 카바니가 투톱을 맡고 디에고 포를란이 처진 스트라이커로 뒤를 받쳐 공격의 3각 편대를 이룬다. 좌우 측면 미드필더는 알바로 페레이라와 에히디오 아레발로가 서고 중앙에선 디에고 페레스가 경기를 조율한다.

이와 함께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호르헤 푸실레-마우리오 빅토리노-디에고 루가노-막시 페레이라가 설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주말·휴일의 월드컵

대한민국 〈26일 21:00〉 우루과이

미 국 〈27일 03:30〉 가 나

독 일 〈27일 23:00〉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28일 03:30〉 멕시코

스코어 보드

슬로바키아	(1승1무1패)	3	F	2	(2무1패) 이탈리아
파라과이	(1승2무)	0	F	0	(3무) 뉴질랜드
일 본	(2승1패)	3	E	1	(1승2패) 덴마크
네덜란드	(3승)	2	E	1	(3패) 카메룬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어둠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과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기아차 노조 끝내 파업 결의

20년 연속 파업 우려 속 지역경제 치명타

기아자동차 노조가 끝내 파업을 결의했다. '20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 기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스포티지R·쏘울 등 광주공장 인기 차종들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며 지역 경제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25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4~25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115명 가운데 2만7525명이 참여해 65.7%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 광주공장의 경우 조합원 6443명 중 5964명이 참여해 찬성 3902명(60.6%), 반대 2030명(31.5%)이었다.

노조는 오는 28일 낮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와 지부장·지회장들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잇따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일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노조는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사측에 한 두 차례 더 협상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스포티지R과 쏘울·K5·K7 등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인기 차종들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출고를 기다리는 고객들의 불편이 우려된다. 기아차는 이들 신차 효과에 힘입어 지난달 내수시장 점유율 34.5%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은 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 손실은 물론 기아차의 신뢰도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지역 총생산액의 24.6%, 지역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공장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고사 직전의 광주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아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노동쟁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또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서는 "노조법을 준수해 노사간 성실히 교섭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 노사는 다시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노조가 파업하면 불법이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주영의 '노바디' 처럼… 즐겨라, 그리고 질주하라

25일(한국시각) 남아프리카공화국 루스텐버그 올림피아 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대표팀 훈련에서 박주영이 벌칙으로 '노바디'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시각장애학생들의 월드컵 ▶3면 세일 알뜰 공략법 ▶4면 주식투자 고수되기 ▶5면 Books ▶8·9면 독자와 함께 ▶13면 허정무 16강전 특명 ▶14면